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서울 서남권 지역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 1년간(2018.12.20.~2019.12.13.) 활동한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함

I 위원회 구성

1. 구성목적

- 서울시 서남권(양천, 강서, 구로, 금천) 주민의 생활권 보장과 항공기 소음 관련 피해구제 및 보상, 소음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및 한국공항공사에 적극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

2. 구성경위

- 특별위원회 구성제안
 - ▶ 서울 서남권(양천·강서·구로·금천) 지역 주민들은 김포공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등 기본적인 생활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임.
 - ▶ 그러나 김포공항은 연간 항공기 운항편수가 2005년 94,787편에서

2017년 145,507편으로 53.5%(50,720편) 급증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 이에 서울 서남권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항공기 소음 관련 피해 구제 및 보상, 소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및 한국공항공사에 적극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 이후 추진경위

- ▶ 2018년 11월 15일 제284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 2018년 11월 16일 제2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 2018년 12월 14일 제28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인의 위원에 대한 선임안이 의결되어 1년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개시하였음

3. 위원명단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 2018년 12월 20일 제1차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우형찬 의원)과 부위원장(이호대 의원, 성중기 의원)을 선임하였음

● 위원명단

- ▶ 위 원 장 :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
- ▶ 부위원장 :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
성중기 의원(자유한국당, 강남1)
- ▶ 위 원 : 문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2)
김희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4)
김화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노승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1)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
채인묵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
황규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
박상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
장인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
이태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4)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

※ 김경 의원, 경만선 의원은 2019년 6월 28일자로 원에 의해 사직하였음

II

위원회 활동경과

- 2018년 12월 20일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이후 서울시 서남권(양천, 강서, 구로, 금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김포공항 소음 관련 서울·경기·인천 광역의원 TF팀 구성 건의안 등을 처리하고 추가 조치 필요사항 등을 논의

차수	일시 및 장소	회의내용	비 고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12.20.(목) · 교통위원회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위원장 : 우형찬 의원 · 부위원장 : 이호대 의원, 성중기 의원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6.28.(금) · 교통위원회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공항 소음 관련 서울·경기·인천 광역의원 TF팀 구성 건의안 채택의 건 · 한국공항공사 사장 전문가 의견 청취의 건 ·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일정 결정의 건 	

III

위원회 활동내용

1. 제1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 2018. 12. 20.(목)
- ▶ 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안 건	주요 논의사항	비 고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선임 :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 선임 :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 성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1)	

2. 제2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 2019. 6. 28.(금)
- ▶ 교통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김포공항 소음 관련 서울·경기·인천 광역의원 TF팀 구성 건의안 채택의 건
2. 한국공항공사 사장 전문가 의견청취의 건
3.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일정 결정의 건

● 회의 주요내용

- ▶ <안건1>김포공항 소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 국제선 증편 억제, 항공기 및 공항 미세먼지 문제 공론화 등 김포공항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인 바, 서울특별시의회는 경기도의회와 인천광역시의회에 김포공항 소음 관련 서울·경기·인천 광역의원 TF팀 구성을 제안
- ▶ <안건2>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향후 개최하는 특별위원회 회의에 의견청취를 위해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참석을 요청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 이번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7조에 따라 요청한 것으로 김포공항에 대한 국제선 증설 시도, 미세먼지 대책, 소음대책 및 고도제한 등 현안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부터 직접 듣고, 아울러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할 계획임
- ▶ <안건3>한국공항공사와의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참석 가능한 일정을 조율할 것임을 밝히면서 향후 의사일정에 대한 조정 권한을 위원장에게 일임

- 회의 사진



1. 항공기 소음피해 지방의회 전국연합 구성 추진

- ▶ 「항공기 소음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 연대 촉구 결의안」 의결('18.12.20)
- ▶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의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가 연대하여 정부와 한국공항공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전국연합 구성 추진

항공기 소음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 연대 촉구 결의안

전국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어 있어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으로 항공기 소음피해가 해당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로 국한되거나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 간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이동과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가 방위를 위해서라면 항공기 운항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와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항공기 소음 발생 원인자인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스스로 소음측정 결과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등 원인자가 스스로를 감시하는 비상식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지도 작성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거나 일부 소음측정 결과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등 국토교통부와 한

국공항공사에 대한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해있다.

군공항 역시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시설이라는 점에서 공항 이전에 대한 약속도, 소음저감 대책의 성실한 이행도,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보상 등도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과 사후 관리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반면 항공기 운항과 공항 운영에 따른 수익은 소음 발생 원인자들이 독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증편과 노선 확대, 군공항의 전투기 훈련 강화 등 오히려 항공기 소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간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공항을 중심으로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 정도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역에 따라 서로 달라 각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대처하지 못했으며, 결국 항공기 소음 발생 원인으로 하여금 제대로 된 대책이나 보상을 받지 못했던 바,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전국 지방의회가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16개 광역의회와 항공기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의 기초의회에 ‘항공기 소음피해 지방의회 전국연합’ 구성을 제안하며, 전국 지방의회가 연대하여 같은 목소리로 공동대응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 12.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

2. 지방공항지역 광역·기초의회 합동 정책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 2019. 5. 22.(수)
- ▶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실

● 안건 : 공항이 위치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항 활성화’와 ‘소음 피해 해소’가 상충되는 문제 논의

● 간담회 주요내용

- ▶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의 안일한 대책과 전국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전국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지방의원 연대 및 피해공동체 구성을 제안
- ▶ 급증하고 있는 항공 수요와 지역의 경제적 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공항에 대한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공항 소음에 노출되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는 주민들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장치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도적 수단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
- ▶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등 정부에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법·제도 개선 촉구를 위해 여러 지방의회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
- ▶ 앞으로도 교통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여러 지방의회와 사안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

- 현장사진



3. 김포공항 소음 관련 서울·경기·인천 광역의원 TF팀 구성 건의안 채택

● 일시 및 장소

▶ 2019.6.28.(금)

● 안건 : 김포공항 소음 관련 서울·경기·인천 광역의원 TF팀 구성 건의안

김포공항 소음 관련 서울·경기·인천 광역의원 TF팀 구성 건의안

2001년 김포공항의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이전되었지만 2003년 다시 국제선이 재취항하면서 소음이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현재는 약 2.4분의 1 대 꼴로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기준 14만 5천여 편의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서울시 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와 경기도 부천시·김포시, 인천시 계양구 주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공항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의 수는 늘어가지만 한국공항공사는 해결책과 대안 없이 국제선 증설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지원금을 항공사 인센티브로 감면해주는 등 위법적인 행태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민원서비스를 임의로 폐쇄할 뿐만 아니라 일방통행식의 소음대책만

마련하는 등 한국공항공사의 갑질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광역의원들이 모여 김포 공항 소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 국제선 증편 억제, 항공기 및 공항 미세먼지 문제 공론화 등 김포공항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는 경기도의회와 인천광역시의회에 김포공항 소음 관련 서울·경기·인천 광역의원 TF팀 구성을 제안하며,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2019. 6.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

붙임 1. 보도자료 4부.

■ 참고자료 1. 보도자료

2018.11.19(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우형찬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담당의원 : 우형찬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우형찬

010-2352-6193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2매

연구실

의원회관
826호

2180-8826~7

서울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확정

- 우형찬 의원, 정부와 한국항공공사 상대로 개선대책 반드시 이끌어낼 것!
- 운영위원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활동 서울 전역으로 확대 필요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제 284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리고, 향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부와 한국항공공사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과 관련 피해구제, 보상, 소음방지, 국제선 이전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난 8월 29일 우형찬 의원 외 15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였고, 11월 15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원안으로 가결되었으며, 11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이 확정되었다.
- 특히, 11월 15일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을 서울 서남권으로 한정하지 않고, 항공기 소음의 피해가 있는 서울시 내

모든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 운영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김포공항은 1일 평균 388편의 항공기 운항, 68,547명의 승객과 790통의 화물을 수송하고 있어 산술적으로 따지면 2.7분에 1대 꼴로 항공기 이착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항공기 운항편수의 급증으로 서남권(양천, 강서, 구로, 금천)지역 주민의 항공기 소음 피해는 매년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 우형찬 의원은 “제9대 서울시의회에 이어서 제10대에서도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하면서 “항공기 소음은 정부와 한국항공공사를 상대로 하는 긴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항공기 소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서울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소음피해 보상 단위 및 지역 확대, 국제선 이전, 현재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피해 측정 및 보상의 타 기관 이전 등 개선 대책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제9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서울의회 및 영상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 름 : 우 형 찬 (더불어민주당, 양천 제3선거구)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826호

Tel : 02) 2180-8826~7

Fax : 02) 2180-8830

E-mail : kfmpd@naver.com

■ 참고자료 2. 보도자료

2018.12.20(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담당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장	우형찬	010-2352-6193 02)2180-8826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02)2180-8226
입법조사관	조도형	02)2180-8236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3매

항공기 소음피해 지방의회 전국연합 세력화 추진!

- 서울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위원장 :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구 제3선거구)
 - 부위원장 :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제2선거구)
성중기 의원(자유한국당, 강남구 제1선거구)
- 특위 위원 20인 공동발의 「항공기 소음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 연대 촉구 결의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

□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이하 “항공기소음특위”)는 12월 20일(목)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 부위원장에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과 성중기 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을 각각 선임했다.

○ 아울러 특위 위원 20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항공기 소음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 연대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앞으로 “항공기 소음피해 지방의회 전국연합” 구성이 추진된다.

- 항공기소음특위는 이미 지난 2015년 4월부터 제9대 서울시의회에서 구성되어 서울서남권역을 대상지역으로 올해 6월까지 운영된 바 있으며, 제10대에 다시 구성되어 서울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된다.
- 항공기소음특위 위원장에는 지난 제9대에 이어 제10대에도 **우형찬**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초선의 이호대** 의원과 **재선의 성중기** 의원이 새롭게 선임되었다.
- 한편, 항공기소음특위 위원들은 첫 의정활동으로 지난 12월 14일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결의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항공기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한 전국적 규모의 세력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우형찬** 위원장은 “전국 각 공항을 중심으로 공항 주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항공기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소음피해 정도가 다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달라 각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정부나 공항공사로부터 제대로 된 피해 보상과 방지대책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하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전국 지방의회가 연대하여 같은 목소리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9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름 : 우 형 찬 (더불어민주당, 양천구 제3선거구)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826호

Tel : 02) 2180-8826~7

Fax : 02) 2180-8830

E-mail : kfmpd@naver.com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 름 : 이 호 대 (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제3선거구)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506호

Tel : 02) 2180-8346

Fax : 02) 2180-8350

E-mail : happyday5319@gmail.com



제9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 름 : 성 중 기 (자유한국당, 강남구 제1선거구)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818호

Tel : 02) 2180-8786

Fax : 02) 2180-8790

E-mail : sung738@daum.net

■ 참고자료 3. 보도자료

2019.05.23(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담당부서 : 교통위원회

교통위원장	김 상 훈	2180-8220 010-3673-6359
수석전문위원	김 동 수	2180-8226
입법조사관	조 도 형	2180-8236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3매

공항문제 등 교통현안, 지방의회 연대로 해법 찾는다!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지방공항지역 광역·기초의회 합동 정책토론회 개최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마포1)는 상반기 세미나 기간 중 5월 22일(수) “지방공항지역 광역·기초의회 합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공항이 위치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항 활성화’와 ‘소음피해 해소’가 상충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합동 정책토론회는 서울시의회(교통위원회) 및 전라북도 광역의원과 군산시의회 기초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 /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항공 교통량과 항공기 소음에 따른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의 안일한 대책과 전국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

는 일원화된 창구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전국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지방의원 연대 및 피해공동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전라북도의회 및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급증하고 있는 항공 수요와 지역의 경제적 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공항에 대한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공항 소음에 노출되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는 주민들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장치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도적 수단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등 정부에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법·제도 개선 촉구를 위해 여러 지방의회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 **김상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공항 활성화와 소음피해 해소라는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지방의회가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과 더불어 향후 공항 문제에 대해 여러 지방의회 간의 교류 및 연대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교통 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여러 지방의회와 사안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김 상 훈 (더불어민주당, 마포 제1선거구)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층 교통위원장실

Tel : 02) 2180-8220~1 / Fax : 02) 2180-8249

E-mail : hon33@hanmail.net

[별첨]



■ 참고자료 4. 보도자료

2019.06.28(금)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담당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장	우형찬	010-2352-6193 02)2180-8826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02)2180-8226
입법조사관	조도형	02)2180-8236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4매

김포공항 현안 관련 한국공항공사 사장 의견청취 추진!

- 우형찬 항공기소음특별위원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참석 여부가 김포공항 당면 문제 해결의지의 가늠자 될 것!
- 서울시의회, 김포공항 소음 관련 서울·경기·인천 광역의원 TF팀 구성 추진

□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위원장 우형찬, 이하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는 6월 28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87회 정례회 1차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김포공항 소음 관련 서울·경기·인천 광역의원 TF팀 구성 건의안 채택의 건”과 “한국공항공사 사장 전문가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향후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일정 결정”을 TF팀 구성 및 의견청취 일정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하도록 일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광역의원들이 모여 구성할 “김포공항 소음 관련 서울·경기·인천 광역의원 TF팀”은 김포공항 소음문

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미세먼지 발생 및 국제선 증편 문제 등을 다루게 될 예정이어서 한국공항공사가 그간 보여준 불통과 무책임한 행정
에 대해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향후 개최하는 특별위원회 회의에 의견청취를 위해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참석을 요청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7조에 따라 요청한 것으로 김포 공항에 대한 국제선 증설 시도, 미세먼지 대책, 소음대책 및 고도제한 등 현안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부터 직접 듣고, 아울러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 **우형찬 항공기소음특별위원장은** “한국공항공사는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현재 상황과 문제점, 대안들을 말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한편, 한국공항공사의 껌껌이 행정과 불통 행정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개최될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회의에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참석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에서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참석 여부가 공항소음, 국제선 증편, 미세먼지 등 당면 현안에 대한 한국공항공사의 해결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는 한국공항공사와의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참석 가능한 일정을 조율할 것임을 밝히면서 향후 의사일정에 대한 조정 권한을 위원장에게 일임하였다.



제9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름 : 우 형 찬 (더불어민주당, 양천구 제3선거구)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826호

Tel : 02) 2180-8826~7

Fax : 02) 2180-8830

E-mail : kfmpd@naver.com

김포공항 소음 관련 서울·경기·인천 광역의원 TF팀 구성 건의안

2001년 김포공항의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이전되었지만 2003년 다시 국제선이 재취항하면서 소음이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현재는 약 2.4분의 1 대 꼴로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기준 14만 5천여 편의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서울시 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와 경기도 부천시·김포시, 인천시 계양구 주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공항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의 수는 늘어가지만 한국공항공사는 해결책과 대안 없이 국제선 증설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지원금을 항공사 인센티브로 감면해주는 등 위법적인 행태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민원서비스를 임의로 폐쇄할 뿐만 아니라 일방통행식의 소음대책만 마련하는 등 한국공항공사의 갑질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광역의원들이 모여 김포공항 소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 국제선 증편 억제, 항공기 및 공항 미세먼지 문제 공론화 등 김포공항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는 경기도의회와 인천광역시의회에 김포공항 소음 관련 서울·경기·인천 광역의원 TF팀 구성을 제안하며,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2019. 6.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